어린이 책꽂이

▲콩나물 병정의 모험=중국 최고의 동화작가 정위엔지에가 쓴 기발하고 통쾌한 상상력이 넘치는 이야기. 공부만 강요하고 위선에 가득찬 어른들과 아이들을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학교 교육을 비판한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할아버지의 뒤주=할아버지와 한 방을 쓰게 된 민제는 우연히 한밤중에 등산용 베낭을 메고 뒤주에서 나오는 할아버지를 목격한다. 할아버지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던 민제는 새벽 2시50분만 되면 할아버지가 뒤주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계절 출판사·8천800원〉

▲척척 손 아저씨 이야기=척척 손 아저씨는 늘 거리를 다니며 이것저것을 보고 배우는 모험가다.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린 어느날, 숲속으로 놀러 나갔다가 미끄러져 손을 다치게 된다. 과연 손 아저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풀빛·8천800원〉

▲만화 헤로도토스 역사=서울대가 선정한 인문고전 50편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화로 구성했다. 페르시아의 성립과 흥망성쇠,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중해 문명의 발생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주니어 김영사·1만2천원〉

▲태왕 광개토(전2권)=천군만마를 호령하여 민족의 기상을 드넓은 대륙에 떨친 태왕 광개토의 일대기.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당시 의상, 갑옷, 무기 등이 섬세하게 그려져있다.

〈현문미디어·각권 8천500원〉

쩝쩝쩝쩝·달그락 달그락·짜그르륵 짜그르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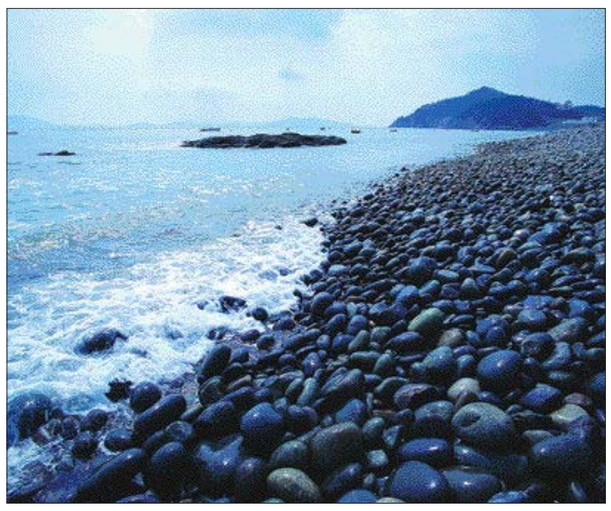
시 속에 묻어 둔 삶·추억·풍경 소리

소리, 가락을 품다 송수권 지음

'듣는 것', '들리는 것'보다는 '보는 것', '보이는 것'에 더 익숙한 시절이다. 아름다운 풍광이나 삶의 모습들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것들이 들려주는 '소리'에까지 귀 기울이는 이는 드물다.

예를 들면 '얼음장 밑 물 흐르는 소리'나 '바닷가 조약돌 씻기는 소리'나 '삽살 강아지 밥 먹는 소리'나 '겨울 한밤중 가락 국수 소리'에.

고흥 출신 시인 송수권이 쓴 '소리, 가락을 품다'는 '귀 밝은' 시인이 찾아낸 소리들을 자신의 시와 함께 소개한 산문집이다. 부제는 '시로 쓰는 한국의 소리'.



송수권 시인의 산문집 '소리, 가락을 품다'에 소개된 '바닷가 조약돌 씻기는 소리'는 짜그르륵…'이다. 사진은 완도 정도리 조약돌.

'풍경' '자연' '일' '삶' '마음' 등 모두 5개의 항목으로 묶인 50여가지 '소리'에는 시인의 삶이 깃들어 있고, 추억이 묻어 있고, 우리 시대의 풍경이 녹아 있다.

책에 소개된 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때론 낯설다. '시각적'으로는 확 떠오른데, '청각적'으로는 알쏭달쏭하다는 말이다.

목차를 쭉 읽어내려 가다 보면 궁금증이 생긴다. '삽살 강아지 밥 먹는 소리'는 어떨까. 시인의 작품 '어초장記·2'와 함께 소개된 그 소리는 '차랍차랍, 쩝쩝쩝쩝…'이다.

어릴적 시인의 집에서 기르던 씨암탉이 서른개가 넘는 '알을 품고 굴리는 소리'는 '달그락… 달그락…'. 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의 배경이 된 아타르타 남불 해안에서 주워 온 조약돌을 들여다 보며 추억하던 '바닷가 조약돌 씻기는 소리'는 '짜그르륵… 짜그르륵…'.

어렸을 적 '고망쥐처럼' 들락거렸던 외할머니 집. 시인이 갈 때마다 "오메, 저게 누당가! 내 강아지 어서 오너라"하며 맨발로 뜨락을 내려서 덥석 끌어안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던 시인이 '외할머니 부채 바람 소리'라는 시와 함께 들려주는 그 소리는 '왈랑 왈랑'이다.

'비 오는 날 기적 소리'는 슬펐고, 그래서 고등학생이던 시인은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삐거덕 삐거덕, 우렁 우렁'하던 '달밤에 우물물 긷는 두레박 소리'는 달빛이 밝은 밤 우물가에서 멱 감던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담이 함께 어우러지며 '우물 긷기'라는 시와 소개된다.

시(詩)는 말할 것도 없고 풀어 쓴 산문도 아주 시적이다.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고 목차를 훑어보며 마음이 가는 소리를 먼저 들춰보면 된다. 특히 각각의 소리에 대해 먼저 상상을 해 본 후 읽으면 훨씬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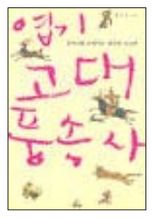
1975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산문에 기대어'가 당선돼 등단한 송 씨는 소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영랑시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언 땅에 조선 매화 한 그루 심고' 등 시집, '남도의 맛과 멋' '아내의 맨발' 등 산문집이 있다.

〈열음사·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4가지 키워드로 본 고대 사회 이야기

엽기 고대풍속사 황근기 지음



'엽기 조선왕조실록'으로 딱딱한 역사서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글쓰기 유형을 선보인 작가 황근기씨가 이번에는 고대(古代)로 눈길을 돌렸다.

'엽기 고대풍속사'는 '전쟁과 평화', '사랑과 본능', '부와 권력', '삶과 죽음' 등 4가지 키워드로 고대사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호동왕자가 자명고에 집착한 진짜 이유, 가야 여성들이 군대 간 사연, 남편 셋을 거느린 선덕여왕의 사연, 화랑이 삼국통일 후 아웃사이더로 전락한 이유, 마한 사람들이 너나 없이 문신을 한 이유 등이 저자의 상상력으로 재탄생한다.

위인 중심이던 역사서의 흐름에 반기를 든 저자는 "위대한 인물에 가려진 이름 없는 고대인의 삶은 역사가 아닐까? 엄밀하게 말해서 역사는 그 시대를 산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이라고 말한다. 동네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격식없는 대화체가 책 내용의 해학과 재치에 빛을 더한다.

〈추수밭·1만2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편지·저서 활용해 쓴 프로이트의 전기문

나는 내 어머니… 비르기트 라한 지음

정신분석학 이론으로 예술, 철학, 의학, 과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전기문이 출간됐다.

독일의 전기 작가 비르기트 라한이 쓴 '나는 내 어머니의 애인이다-프로이트, 그 삶의 수수께끼'는 일반적 전기와 달리 철저히 사실에 기초한다. 저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최소화하되 프로이트가 남긴 편지나 저서 등을 활용해 그를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글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인 마르타, 아버지를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막내딸 안나, 그의 망명을 추진했던 친구 마리 보나파르트 공주, 주치의 막스 슈르, 나중에 등을 돌린 친구 칼 융 등 주변 인물들과의 이야기들이 시대 배경과 어우러져 20세기 지성사의 한 페이지를 읽는 듯한 착각을 준다.

〈풀빛·2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 권의 책

디이트리히 본회퍼 '옥중서간'

불혹의 나이 마흔을 넘기면서부터는 이런 저런 대화에서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이 있는지 가끔 질문을 받곤 한다. 그 때마다 내 속으로부터 거침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한결같은 대답이 있었다. 그것은 디이트리히 본회퍼의 '옥중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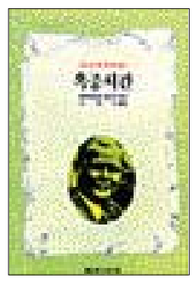
박정희 독재정권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 후반에 지루한 재수과정을 거쳐 고교시절 막연하게 관심을 두었던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정치학 이론과 현실정치의 엄청난 괴리에 실망하면서 나는 차츰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대학 1학년을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친구들과 당구·술로 보낸 나는 같은 과 선배의 권유에 따라 외무고시를 응시하리라 마음먹고 제2외국어 준비를 위해 일본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외국어학원 문을 나와 막 종로를 걷기 시작하던 참에 고교시절 교회를 함께 열심히 다녔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가까운 찻집으로 달려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운데 그 친구는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책 한권을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네가 기독교에 대해 고교시절 함께 나누었던 진지한 물음과 추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렴. 네 삶에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애."

하숙방으로 돌아온 나는 친구의 손 떼가 묻은 그 책의 첫 장을 펼쳤다. 제일 먼저 내 눈을 사로잡은 제목은 '누가 확고하게 설 것인가'였다.



본회퍼는 "악의 일대 가면무도회가 일체의 윤리적 개념을 지리멸렬의 혼란에 떨어뜨렸다"고 당대를 정의하면서 "오늘의 우리처럼 그토록 발아래 디디고 설 땅이 없는 인간이 일찍이 역사상에 존재한 일이 있는가?", "한 시대를 책임있게 사고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전기(轉機)에 처해…(중략)…무책임한 무양심이나 행동화되지 않는 자학적인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성에서 나오는 참된 시민적 용기를 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어 마치 씨름하듯 진땀을 흘리면서 책에 몰입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으로부터 차의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나치시대에 목사로서 하나님과 양심 앞에 부끄럼 없는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행동하는 지식인 본회퍼, 그래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히틀러 암살음모에 가담했다가 독일 패망 직전 39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그는 '옥중서간'을 통해 그리고 짧았던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진정한 지식인과 신앙인의 고뇌와 시대적 책임에 대해 내게 큰 소리가 외쳤다.

그 외침을 끝내 떨쳐버릴 수 없었던 나는 외무고시 준비를 포기하고 그 해 겨울 추운 시대를 웅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던 몇몇 친우들과 함께 서울 청계천 주변 작은 옷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한 도시선교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남 부 원

〈광주YMCA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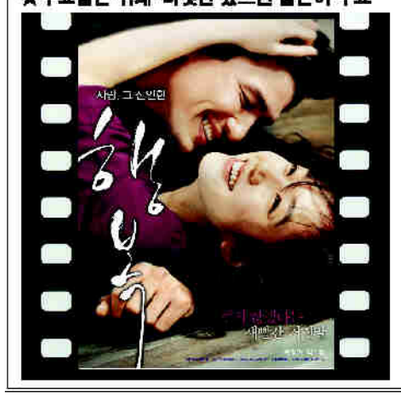
신앙인의 시대적 책임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행 복(15세) 최고급관
2관	비커밍제인(12세)
3관	내니 다이어리(12세)
4관	거침없이 쏴라 슛뎀업(18세)
5관	브레이브원(15세)
6관	본 얼티메이텀(12세)/스테이지 뷰티(18세)
7관	카핑 베토벤(12세)
8관	사 랑(15세)
9관	러시아워3(15세)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빛고을·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연인과 가족의 오붓한 문화공간

내가 엔터시네마를 찾는 이유…

저의 취미는 말하자면 남들 다 말하는 것과 같이 영화감상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제 맛이라고 여기는 저의 생활수칙 때문에 영화관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주변 영화관에 안가고 광주 엔터시네마에 가는 이유가 영화자체에 완전 몰입을 할 수 있어서 입니다.

다른 영화관에 가 보았지만 사람들도 붐비고 시끄럽고 주위가 산만하게 되어 영화몰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엔터시네마를 찾았을 때는 저의 불편한 점을 말끔이 해결해주었지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티켓창구 직원 덕분에 영화보는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답니다.

또한 엔터시네마 내부전체가 너무 깨끗해서 좋았구여.

이렇게 청각적 시각적 감성적으로 고루 3박자를 갖춘 엔터시네마가 있어서 저는 늘 영화를 보러 올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 직장인 김현지

★주차장이 편한 극장 http://www.enter-cinema.co.kr★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권순분여사 납치사건(15세)
2관	내니다이어리(12세)/아드레날린24(18세)
3관	상사부일체(15세)/본얼티메이텀(12세)
4관	행 복(15세)
5관	거침없이쏴라 슛뎀업(18세)
6관	사 랑(15세)
7관	브레이브원(15세)
8관	카핑 베토벤(12세)
9관	비커밍 제인(12세)
10관	러시아워3(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기만)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거침없이 쏴라! 슛뎀업(18세)
2관	브레이브 원(15세)
3관	카핑 베토벤(12세)
4관	사랑(15세)/내니 다이어리(12세)
5관	러시아워 3(15세)
6관	행 복(15세)
7관	비커밍 제인(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새벽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거침없이 쏴라(18세)
2관	카핑베토벤(12세)
3관	행 복(15세)
4관	브레이브원(15세)
5관	사 랑(15세)
6관	비커밍제인(12세)
7관	아드레날린(18세)
8관	다이어리(12세)
9관	러시아워3(15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팝콘레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행 복(15세)
2관	러시아워3(15세)
3관	브레이브원(15세)
4관	사 랑(15세)
5관	내니다이어리(12세)
6관	상사부일체(15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